

관계부처합동		보도설명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21. 7. 16.(금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이병원 (044-215-8510)	담당자	원종혁 사무관 (wjh0935@korea.kr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장보영 (044-215-7230)	담당자	안재영 사무관 (hoochoo@korea.kr)
담당과장	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류승목 (044-200-6323)	담당자	연희정 사무관 (yeonhj@korea.kr)
담당과장	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상용 (044-202-7451)	담당자	구동영 사무관 (uan88@korea.kr)

제목: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편과 한국판 뉴딜 2.0의 청년정책은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 추진되는 것입니다.

<보도내용>

□ '21. 7. 16.(금) 한겨레는 「한쪽선 청년 지원 늘리고... 반대편은 줄이고 '오락가락' 청년 정책」 기사에서,

- ① “정부가 ‘한국판 뉴딜’에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을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”고 하면서,
- ② “한국판 뉴딜에 청년 정책이 신설되면서 추진 주체가 모호해졌다”고 보도

<정부 입장>

- ① 정부는 청년 지원을 확대·강화하는 일관적인 정책 기조하에서 이번 한국판 뉴딜 2.0에 포함된 청년정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이번 한국판 뉴딜 2.0에서는 기존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,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*을 마련하였습니다.

* 청년내일저축계좌(연소득 2,200만원 이하), 청년희망적금(총급여 3,600만원 이하),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(총급여 5,000만원 이하)

-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보다 취약한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.

- ② 한편,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수립·추진되고 있습니다.

- ☞ 따라서, 청년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, 추진주체가 모호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